

저자 (Authors)	李基文
출처 (Source)	<a href="#">진단학보</a> , (52), 1981.12, 65-78 (14 pages) <a href="#">THE CHIN-TAN HAKPO</a> , (52), 1981.12, 65-78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진단학회</a> The Chin-Tan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118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1184</a>
APA Style	李基文 (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진단학보, (52), 65-7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2 13:1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史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李 基 文

## 一

史讀에 관한 지금까지의 研究를 되돌아 볼 때, 우리는 그 成果가 많지 않음을 유감스럽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世紀末 20世紀初에 史讀가 外國人들의 好奇心의 對象이 되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히 지나친 말은 아닌 듯하다. 최근까지도 史讀에 관한 論議라면 으레 史讀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를 다루어온 형편이다. 史讀 研究가 草創期性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史讀 研究가 進展을 이룩하지 못한 이유로서 그것이 研究者들의 魅力을 끌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필경 史讀 研究의 不毛性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研究에서 우리는 뚫고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壁을 느껴온 것이다. 古代 資料의 극심한 缺乏에 허덕여온 國語史 研究에 있어 史讀 資料가 큰 重要性을 지니고 있음이 거듭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史讀 研究는 古代 國語史의 闡明에 독특한 寄與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종래의 史讀 研究에서 한가지 特記할만한 사실은 史讀의 起源에 대한 不斷한 關心이었다. 史讀는 우리 民族의 文字 使用의 중요한 一面이므로, 文字史의 觀點에서 이 문제가 중요시된 것이었다. 이런 關心은 高麗 時代에 이미 싹뻗었으니, 史讀는 薛聰이 지은 것이라는 說이 이때에 시작되어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는 定說이 되어 왔다. 이것이 現代에 와서 史讀의 起源이 각별한 관심을 끌게 된 한 要因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찌기 申采浩(1924)가 薛聰 製作說을 否認하였고 日人學者 小倉進平(1929) 역시 一人 製作說을 否認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에 관한 論議는 解放 뒤에도 계속되어 왔다.

本稿는 이 起源 問題와 관련하여, 筆者가 최근 우리 나라와 日本에서 알려진 金石文들을 檢討하는 過程에서 얻은 몇가지 생각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 過程에서 筆者는 특히 史讀의 初期 形態라고 할 만한 것이 高句麗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지난 30년대부터 싹튼 高句麗의 史讀에 관한 探索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 二

高句麗에도 史讀가 있었다는 생각, 적어도 그 初期 形態가 있었다는 생각은 1913年 平壤

高句麗 故城 石刻文이 발견된 뒤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石刻文을 吏讀集成(1937)의 附錄中 ‘吏讀文例’의 첫머리에 실은 것은 그 編者<sup>1)</sup>가 이런 생각을 막연히나마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그 實證 資料가 이 一例밖에 없었으므로 이 생각은 더 확대되지 못하고 말았었다.

解放뒤 鄭寅承(1957)이 吏讀의 薛聰 製作說을 다시 강력히 주장한 사실은 은연중 싹터던 高句麗 起源說이 잊혀지고 말았던 這間의 事情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論文은 위에 든 小倉進平(1929)의 所論을 비판하는 것을 主眼點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論據의 하나로 그때까지 알려진 吏讀 資料로서 薛聰 以前으로 遡及하는 것이 없음을 들고 있다. 申采浩(1924)가 薛聰 이전의 吏讀의 實例로 든 것은 北漢山의 眞興王 巡狩碑였는데, 여기에는 人名·地名 등을 漢字를 빌어 表記한 例들밖에 없다. 이것을 吏讀라고 본 것은 吏讀는 즉 漢字借用 表記法이라고 하는 그릇된 見解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鄭寅承(1957)이, 高句麗의 石刻文은 제쳐놓고라도, 年代的으로 薛聰보다 앞서는 新羅 吏讀의 資料 즉 壬申誓記石, 南山新城碑 등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된 일이다. 이들은 解放前에 慶州 부근에서 발견되어 內外學界에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後述 참고). 鄭寅承(1957)은 또 하나의 論據로 高麗 時代의 文獻에 나타나는 吏讀의 薛聰 製作說에 관한 記錄들을 제시하였다. 小倉進平(1929)은 吏讀의 薛聰 製作說은 大明律直解를 비롯한 朝鮮 建國 이후의 文獻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믿음직하지 못하며, 高麗 時代로 올라가면 三國史記(卷 46)에는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三國遺事(卷 4)에는 “以方言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授不絕”이라 하여 吏讀에 관한 明言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鄭寅承(1957)은 李承休의 帝王韻記에 “弘儒薛候製吏書 俗言鄉語通科隸”라 明記된 사실과 이보다 앞서 均如傳 譯歌功德分的 崔行歸 序文에 “薛樹林強變於斯文 煩成鼠尾之所致者歟”라 보이는 사실을 들어 高麗 時代에 이미 吏讀의 薛聰 製作說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小倉進平(1929)은 均如傳의 上記 序文에서 ‘鄉札’이란 말을 찾아내어 아마도 이것이 吏讀의 古名일 것이라고 推定한 바 있는데, 그 글 안에 薛聰에 관한 上記 文句가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鄭寅承(1957)은 이 文句를 薛聰이 鄉札(곧 吏讀)를 지은 사실을 崔行歸가 지적한 것으로 보고, 崔行歸는 均如와 同時代人으로 薛聰과의 時代 相距가 그리 멀지 않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여기서 ‘鄉札’을 곧 吏讀로 보아 薛聰이 吏讀를 지었다는 結論을 내린 것은, 위에서 지적하였고 앞으로 本稿에서 소상히 밝힐 歷史的 事實과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自明한 일이다. 筆者는 이 崔行歸의 말은 薛聰이 口訣을 集大成함에 있어 主役을 담당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위에 引用한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의 記錄을 아울러 생각할 때, 薛聰은 역시 口訣의 發達에 가장 큰 貢獻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sup>2)</sup>

1) 吏讀集成의 凡例 맨 끝에 “本書 吏讀의 蒐集 및 編輯은 주로 本院 屬託 金聖陸氏가 이를 담당하였다”고 쓰여 있다.

2) 拙著(1972) 및 南豐鉉(1975) 참고. 우리 나라의 口訣의 歷史에 대한 理解는 지난 73年 忠清南道

아주 끊어지려는가 싶었던 高句麗의 吏讀에 대한 探索이 姜銓燮(1963)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論文은 불행히도 學界에서 돌보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몇가지 觀點에서 매우 注目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筆者는 믿는다. 무엇보다도 吏讀와 鄉札, 口訣 全般에 대한 올바른 認識에 接近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리고 慶州 瑞鳳塚 出土 銀合은 高句麗의 것이며 그 銘文의 ‘延壽’는 長壽王의 年號일 것이라고 推定하고 따라서 이 銘文 속의 “三月中”의 ‘中’字는 高句麗의 用例라고 주장한 것은 卓見이었다. (後述 참고) 이리하여 上述한 平壤城壁 石刻文의 吏讀의 用例에 또 하나의 例를 追加한 것이다. 이 追加에 힘입어, 姜銓燮(1963)은 “吏讀的인 文章 表記法”이 高句麗에서 起源했음을 분명히 말하였던 것이다.

筆者는 年來로 古代 三國의 資料를 검토해 오는 동안에 高句麗가 文字 使用에 있어 先導의 位置에 있었음을 느껴 왔다. 漢字를 빌어 人名, 地名, 官名 등을 表記하는 方法이 高句麗에서 百濟와 新羅로 전해진 듯한 흔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吏讀라고 하는 것도 古代人들의 文字 使用의 一面이므로 이 역시 高句麗에서 그 싹이 텄을 可能性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數年間에 있는 몇가지 사실이 筆者로 하여금 이 생각을 어느 정도 굳힐 수 있게 하였다. 아래에 이 사실들에 대하여 略述해 보려고 한다.

### 三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新羅의 資料에 대해서, 특히 그중 오랜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 보고나서 本論으로 들어갈 필요를 느낀다. 우리 나라의 古代 資料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吏讀와 관련된 羅代의 資料도 初期로 올라갈수록 적어져서 그때의 참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도 몇 조각의 金石文이 남아서 그 片貌나마 엿볼 수 있게 된 것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겠다.

吏讀와 관련이 있는 羅代의 資料로는 우선 壬申誓記石을 생각하게 된다. 1934年 慶州에서 발견된 이 돌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토한 末松保和(1954)는 이 글의 ‘壬申’을 聖德王 31年(732)으로 推定하였으나 李丙燾(1957)는 이보다 훨씬 거슬러 552年(또는 612年)으로 推定한 바 있다. 이 年代 問題에 筆者로서 容喙할 형편이 못되지만, 순수한 表記法의 觀點에서 볼 때 이 글은 下述할 南山新城碑의 글보다 前段階의 것임이 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러한 表記法의 發展 段階와 個別 資料의 絶對 年代가 모든 경우에 對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誓記石의 年代를 732年으로까지 내려서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石刻文은 종래 誓記體라 하여 吏讀와는 구별하여 왔다. 그만큼 이 글은 독특한 것이

文殊寺에서 舊譯仁王經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아주 새로워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沈在箕(1975), 安秉禧(1977) 등 참고.

다. 그러나 넓은 觀點에서 보면 이것은 初期 吏讀의 한 形態로 볼 수가 있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이 글과 下述할 吏讀文들과 비교해 보면 文法形態의 表示가 덜한 점이 가장 현저한 차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글에도 文法形態의 表示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可容行誓之”의 ‘之’가 그것이다. 이 글의 “天前誓”나 “天大罪得誓”에는 ‘之’가 없는 것과 對照의이다. ‘之’는 新羅 吏讀에 자주 보이는 文章의 終結形인데, 이 글에서는 文章이 큰 段落을 지은 곳에 이 ‘之’字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튼 “可容行誓之”의 ‘之’가 中國漢文에서는 볼 수 없는 終結形 表示로 사용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之’字의 用例는 戊戌塢作碑에도 보인다. 이 碑文은 578年으로 推定된 바 있는데(任昌淳 1958), “此成在□□者…”에도 吏讀의 用法이 느껴지지만, “了作事之”는 분명한 吏讀의 用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에 慶州 南山新城碑가 있다. 1934년에 이 비석이 발견되어 學界에 알려졌었는데 그뒤 비슷한 碑文이 뒤이어 발견되었다.<sup>3)</sup> 이 碑文은 그 年代가 眞平王 13年(591)으로 確立된다. 이점 新羅 吏讀의 歷史를 밝힘에 있어 더없이 소중한 한 標點이 되는 것이다. 이 碑文이 이미 상당히 발달된 吏讀을 보여주므로, 新羅 吏讀의 歷史는 이보다 앞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碑文 첫머리의 “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崩破者罪教事爲聞教令誓事之”는 소박하면서도 典型的인 吏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南山新城作節”의 ‘節’은 後代의 吏讀에서도 자주 사용된 것인데 羅代에도 ‘디위’와 같이 읽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文脈으로 보아 意味는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如法以作”의 ‘以’는 造格 表示로, 後代의 吏讀에서도 이 用法은 연면하게 나타난다. “後三年崩破者”의 ‘者’는 다음에 들 葛項寺 造塔記에도 사용된 것으로, 中世國語의 ‘은/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後代의 吏讀에서는 그 用例를 찾아보기 어렵다. “罪教事爲聞教令誓事之”는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後代의 吏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우선 사용된 문자들이 매우 낮은 것들이요 또 이 문자들의 後代의 用法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뜻이 대체로 통한다. 後代의 吏讀에서 ‘教事’가 ‘이산 일’로 읽힘은 들어 말하기도 세삼스러우며 ‘之’는 위의 壬申誓記石에서도 본 것으로 다음에 말할 葛項寺 造塔記에도 보인다.

時代가 뒤지지만 景德王 때에 된 葛項寺 造塔記(758)는 잘막하지만 羅代 吏讀의 한 標本으로 들만한 것이다. 그중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에는 處格 表示의 ‘中’과 文末의 ‘在之’가 보이며 “甥姊妹三人業以成在之”에는 造格 表示의 ‘以’와 함께 ‘在之’가 보인다. 그리고 “甥者零妙寺言寂法師在旆 姊者照文皇太后君姊在旆 姊者敬信太王姊在也”에는 ‘在旆’와 ‘在也’가 보인다. ‘者’의 用法도 주목된다. 이중 ‘中’은 新羅 帳籍(日本 正倉院 所藏)에는 “三年間中”이라고 여러번 나타나며 後代의 吏讀에서는 ‘良中, 亦中, 如中’ 등이 사용되었다.

3) 자세한 것은 李弘植(1960) 및 秦弘燮(1965) 참고.

以上 이미 널리 알려진 新羅 資料 중에서 年代가 이른 것 몇개를 찾아 검토해 보았다. 現傳 資料의 貧困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6世紀 史讀의 特徵的 面貌를 엿볼 수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新羅에 있어서의 史讀의 歷史가 6世紀보다 그리 앞서지 않은 時期, 아마도 5世紀에 遡及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도 한 소득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본 初期 新羅 史讀의 特徵을 이루는 文字들의 몇개를 高句麗의 資料에서도 볼 수 있다면, 그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高句麗 金石文은 廣開土王陵碑를 비롯하여 몇 안되지만, 이런 적은 資料에서 新羅 史讀에서 사용된 特徵的 文字들과 同一한 文字들이 同一한 用法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은 여간 주목할만한 사실이 아니다.

먼저 ‘中’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瑞鳳塚 出土의 銀合銘에 나타난다. 이 銘文(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太王敬造)의 ‘中’이 史讀의 例임은 李弘植(1954)에서 분명히 지적되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 銀合을 新羅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이 ‘中’을 新羅 史讀의 資料로 看做했었다. 姜銓燮(1963)이 이 銀合銘을 高句麗 資料로 보았음은 上述한 바이지만, 최근 李丙燾(1979)에서 이 銀合이 高句麗의 遺物이라는 새로운 推論이 전개된 바 있다.<sup>4)</sup> 筆者는 이 推論이 매우 說得力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 銘文의 ‘延壽元年’(辛卯)이 長壽王 39年(451)에 해당한다는 推定은 앞으로 말할 高句麗 資料들을 考慮에 넣을 때에도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은, 高句麗에서 處格 表示로 사용된 ‘中’의 用例 하나가 이보다 앞서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 學界에서 舉論되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다. 그것은 다름아닌 平壤 高句麗 故城 石刻文이다. 1913년에 발견된 이 石刻文은 朝鮮金石總覽(1919)에 실렸고 史讀集成(1937)에 再錄되었는데, 불행히도 ‘中’字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즉 前者에는 이 石刻文이 “丙戌十二月四漢城下後四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로 되어 있고 後者에는 나중 ‘四’字가 ‘部’로 修正되었으나 ‘中’字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鮎貝房之進(1934)에 첫 ‘四’字는 ‘中’의 誤讀이요 나중 ‘四’字는 ‘卍’의 誤讀임이 지적되어 있는 것이다. 첫 ‘四’字는 그대로 놓고는 意味가 不明하지만 ‘中’으로 고치면 ‘十二月中’은 정히 위에서 본 銀合銘의 ‘三月中’과 그 用法이 一致하는 것이다. 아직 高句麗에 있어서의 ‘中’의 특수한 用法에 대한 認識이 전혀 없었을 때에 이렇게 고쳐 읽었으니, 어떤 偏見의 所致로 풀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姜銓燮(1963)은 이 石刻文에 대하여 史讀集成의 編者가 “後四小兄”의 ‘四’를 ‘部’로 修正한 사실을 지적하고 “十二月四”의 ‘四’도 ‘部’로 修正할 것을 提議하였다. 그리하여 “만일 ‘十二月部’가 옳은 判讀이라면 ‘部’는 處格의 借字 表記라고 보아야 되겠다”고 결론하였다. 이 判讀의 옳고 그름은 여기서 경솔히 말할 수 없지만, ‘部’를 處格 表示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째, ‘部’라는 漢字는 意味로 보나 音으로 보

4) 李丙燾(1979)의 附記에 姜銓燮(1963)에 대한 言及이 보인다.

나 處格 表示에 사용될 可能性이 거의 없어 보인다. 둘째, ‘部’를 處格 表示로 본다면 上述한 處格 表示인 ‘中’과의 差異가 문제된다. 셋째, ‘部’가 處格을 表示한 例로 均如의 稱讚 如來歌의 “今日部伊冬衣”, 懺悔業障歌의 “今日部頓叱懺悔”를 들고 있으나, 이 ‘部’를 處格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sup>5)</sup>

여기서 이 石刻文의 年代가 문제된다. 平壤 高句麗 故城 石刻文은 1913年 이전에 두개가 발견되어 이미 金正喜가 그 年代推定을 행한 바 있다. 그는 海東金石苑에서 이 두 石刻文에 解說을 붙이면서, 이 글들을 高句麗 長壽王代의 것이라고 推定한 것이다. 日本學者들은 이 年代를 끌어내리려는 意圖를 보였으나<sup>6)</sup>, 筆者의 생각에는 金正喜의 推定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위에 든 또 하나의 石刻文에 보이는 ‘丙戌’은 長壽王 34年(4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9年 우리의 耳目을 끈 中原 高句麗碑는 文面이 거의 磨滅되다시피 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高句麗碑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判讀에 성공한 것은 慶賀할 일이었다. 특히 筆者에게는 그 밝혀진 부분에 “五月中高麗大王”이라 하여 ‘中’의 例가 보이는 것이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이로써 高句麗에 있어서의 ‘中’의 例가 셋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비석은 대체로 長壽王 後年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中’의 使用을 考慮할 때에도 이 推定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上述한 두개의 ‘中’의 例가 모두 長壽王代의 것이란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之’字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이것이 新羅 資料에서 文章의 終結形 表示로 사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同一한 用例가 廣開土王陵碑에 있음이 지적된 것은 注目を 끌지 않는다. 이 碑文 역시 判讀에 問題가 있으므로 慎重을 期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맨끝의 “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에는 별로 의문이 제기될 바 없다. 이 부분에서 앞의 ‘之’는 目的語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中國 漢文에 어긋남이 없으나, 뒤의 ‘之’는 目的語로 볼 수 없으니 中國 漢文의 文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新羅의 例들과 같이 文章의 終結形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上述한 平壤 高句麗 故城 石刻文의 “自此西北行涉之”의 ‘之’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 ‘之’의 用法은 中國 漢文의 文法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듯하다.

끝으로 ‘節’에 言及하기로 한다. 平壤 故城 石刻文에 사용된 ‘節’이 吏讀와의 관련에서 가장 일찍 注目を 끌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다만 이 石刻文의 ‘節’은 그 解釋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 이 石刻文과 南山新城碑는 그 性格이 비슷한 점이 흥미 깊은데 後者의 ‘節’은 後代 吏讀에서 ‘디위’로 읽힌 用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대하여 前者의 ‘節’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약간

5) 梁柱東(1942) 이래 이 ‘部’는 ‘주비’로 읽혀 왔다. 姜銓燮(1963)의 註記에 이 새로운 讀法은 “池憲英, 增訂 鄉歌麗語新釋(近刊)”을 참고하였음을 말하고 있으나, 이 책은 그뒤 刊行되지 않았다.

6) 一例로 鮎貝房之進(1934) 참고. 최근의 論著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다.

의 試圖이 있었으나<sup>7)</sup> 좀더 두고 생각해 볼 課題로 남겨둔다. 앞으로 어떤 해석에 도달하든, 이 ‘節’字가 순수한 中國 漢文에서는 볼 수 없는 用法으로 쓰인 것만은 확실하며 바로 이 字가 新羅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高句麗 資料에 보이는 ‘中, 之, 節’三字의 用例들을 들어 보았다. 아마도 이들이 현재 高句麗 文字 資料에서 史讀와의 關係에서 주목되는 例들의 전부가 아닌가 한다. 비록 三字에 지나지 않으나, 바로 이들이 新羅의 初期 史讀에 사용된 대표적인 문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重要性은 결코 過少評價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특히 高句麗의 例들이 新羅의 그것들보다 年代的으로 앞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重要性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筆者는 高句麗의 文字 資料에서 이들 三字 이외에도 이들과 같은 특이한 用法으로 쓰인 문자들이 있었을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으려 한다. 실제로 이러한 文字가 中原 高句麗碑에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鄭永鎬 1979) 이런 判讀이 확정된다면 매우 큰 수확이 될 것이지만, 本稿에서는 이들을 學論하는 것을 保留하기로 한다.

#### 四

前章에서 보아온 高句麗와 新羅에 있어서의 몇몇 文字의 用法의 一致는 어떻게 解釋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用法은 高句麗에 먼저 있었고 나중에 新羅로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한 見解가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도 高句麗 資料들의 年代가 이런 歷史的 事實을 강력히 示唆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古代의 文字 使用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認識을 얻게 된다. 그것은 文字를 배워서 쓰는 일에 엄격한 傳授 過程이 있었다는 점이다. 文字의 使用은 現代人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을 주며 전반적으로 保守的 傾向을 띠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는데, 古代人에게는 이런 傾向이 더욱 심했던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古代의 中國, 우리 나라, 日本에 걸친 文字 使用의 歷史的 連脈이 주의 깊게 考慮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近年에 日本에서 발굴된 두개의 金石文은 이런 觀點에서 매우 흥미깊은 것이었다. 그 하나는 稻荷山 古墳에서 出土된 鐵劍의 銘文으로 1978年 9월에 公表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古事記의 著者로 알려진 安萬侶의 墓誌로 1979年 1월에 公表된 것이다. 이 글들은 公表되자마자 日本學界에 대단한 흥분을 불러 일으켰고 한때 日本 매스컴을 떠들석하게 했었다.

便宜上 後者에 대해서 먼저 논하기로 한다. 이 墓誌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左京四條四坊從四位下勳五等太朝臣安萬侶以癸亥年七月六日卒之 養老七年十二月十五日乙巳”(養老七年

7) 南豐鉉(1975)이 이것을 ‘管掌, 監督’의 뜻으로 보고 新羅에도 이와 비슷한 用例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注目할 만하다.

는 723年). 여기서 ‘卒之’의 ‘之’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것은 바로 廣開土王陵碑를 비롯한 여러 金石文의 ‘之’의 用法과 一致한다. 中國 漢文에서는 自動詞 ‘卒’ 뒤에 目的語 ‘之’가 쓰인 例를 찾아볼 수 없으니(小川環樹 1980),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된 終結形 表示의 用法이 日本에 건너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여기서 古事記의 著者の 墓誌에 이런 用例가 나타난 사실을 소홀히 넘길 수가 없다. 古事記의 漢文에 대한 再檢討가 요청되는 것이다. 古事記에 보면 ‘以, 者’ 등의 用例에 위의 新羅 資料에서 본 것을 방불케 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古代 人名에 ‘막’ (宗)가 많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日本에 건너가 ‘麻呂’ 등이 되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梁柱東 1942) 이렇게 볼 때 安萬侶는 우리 나라 계통의 학자였을 蓋然性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公表된 바에 의하면, 稻荷山 鐵劍銘에 보이는 文字는 모두 115字인데 이 글의 讀法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日本學者들은 그들이 漢文을 읽는 通例에 따라 이 글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各人各樣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人名의 讀法에 대해서도 嚴密性이 缺如된 例가 많았다. 이러한 讀法에 입각하여 이들 이름과 日本書紀나 古事記에 나오는 이름을 一致시키려는 성급한 試圖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獲加多支婁大王’을 雄略天皇이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것이 日本 古代史에 대해서 있어온 여러가지 懷疑를 씻어주는 것이라 하여 日本學界를 흥분시켰던 것이다. 이런 성급한 結論에 대해서는 日本學界에서도 批判의 소리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sup>8)</sup>

이 銘文을 보았을 때, 筆者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느낀 것은 그 漢字의 用法이 古代의 우리 나라의 그것과 많은 類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銘文의 올바른 解釋은 우리 나라 古代의 漢字의 用法을 모르고는 不可能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였다. 이 問題를 詳論하는 것은 本稿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여기서는 本稿와 직접 관련이 있는 事實에 論議를 국한시키기로 한다. 이 銘文은 “辛亥年七月中記”로 시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七月中”의 ‘中’의 用法은 정히 저 위에서 본 高句麗와 新羅의 ‘中’의 例들과 一致하는 것이다. 이 鐵劍銘에 ‘中’이 나타난 것이 계기가 되어, 日本에서는 古文獻 및 金石文에 이와 비슷한 ‘中’의 用例들을 찾아 모으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 光背銘의 “三月中”과 日本書紀에 보이는 “甲子七月中”(神功四十六年紀), “秋九月中”(應神十三年紀) 등이다. 여기서 특히 “甲子七月中”의 例는 ‘卓淳王 末錦旱岐’의 말 속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用例를 引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9)</sup>

日本에 있어서는 上記한 日本書紀의 ‘中’에 nakanötōwoka(가운데 열흘)라는 古訓이 있

8) 이 鐵劍銘에 대한 包括的인 敘述로 Murayama Shichiro and Roy Andrew Miller(1979)가 있다. 本稿는 이 論文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여기에 밝혀 둔다.

9) 日本學者들은 ‘卓淳’을 ‘達句火’(지금 大邱)에 比定하고 있다. 坂本太郎 外(1967), 620面 참고.

어, 일반적으로 中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sup>10)</sup>, 이에 따라 鐵劍銘의 “七月中”의 ‘中’도 대개 그렇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新羅에 있어서의 ‘中’의 用例가 處格 表示였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위의 解釋에 批判이 加해지게 되었다.

지난 79年 日本 京都에서 있는 한 회의에서 위의 鐵劍銘과 墓誌에 대한 討論이 있었는데 小川環樹教授와 筆者가 각각 中國과 韓國의 觀點에서 의견을 말했었다.<sup>11)</sup> 먼저 小川教授는 古代中國의 春秋 및 正史에는 “卒之”의 ‘之’나 “七月中”의 ‘中’과 같은 用例는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北魏의 文獻에 이러한 ‘中’의 例가 보임을 지적하였다. 安定王元變造像記에 “正始四年二月中訖”, 皇甫麟의 墓誌에 “正始四年中還鄉” 등. 이 예들의 正始 4年은 西曆 507年에 해당한다. 筆者는 ‘中’이 新羅보다도 앞서 高句麗의 長壽王代에 사용되었음을 瑞鳳塚 銀合銘과 中原高句麗碑의 예를 들어 말하고, 小川教授가 든 北魏의 예들에 주목하여, 高句麗와 北魏는 地理的으로 가까웠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北魏는 鮮卑族이 세운 나라로 알타이系(蒙古系) 言語가 사용되고 있었으므로<sup>12)</sup>, 이 두 나라의 ‘中’의 用法은 偶然의 一致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여 말한 바 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問題가 提起된다. 處格 表示로서의 ‘中’의 用法이 北魏, 高句麗, 新羅, 日本에서 확인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sup>13)</sup> 위에서 筆者는 高句麗와 新羅의 경우에 前者에서 後者로 전해진 것으로 해석한 바 있지만, 文字의 用法은 傳授에 의해서 퍼진다고 보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日本의 경우에도 新羅나 加耶(또는 百濟)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온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古代 日本에 있어서의 ‘中’의 用例가(‘之’의 用例도) 그렇게 많지 않은 듯이 보인다. 이것은 이 用法이 一般化되지 않고 주로 이 用法을 아는 우리 나라 계통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北魏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筆者는 아직 北魏의 資料를 직접 검토해 본 일이 없고 小川環樹(1980)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미흡함을 느끼지만 이 논문에 제시된 北魏의 資料는 모두 6世紀 初葉의 것들이다. 이 年代만을 놓고 볼 때에는 高句麗에서 시작된 ‘中’의 用法이 北魏에 갔다는 결론에 도달합직하다. 이 可能性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逆일 可能性을 완전히 排除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인 것 같다. 現存 資料의 不完全性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北魏는 4世紀末에 建國되었고 高句麗와의 關係는 長壽王이 즉위한 뒤에, 대체로 西曆 435年頃에 밀접해졌다고 하는데, 高句麗의 ‘中’의 例들이 이보다 조금 뒤에 나타나는 사실이 아무래도 偶然인 것 같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北魏의 言語는 蒙古系였고 그 言語에도 處

10) 一例로 校本太郎 外(1967), 618面 참고.

11) 이 때에 발표한 논문은 京都産業大學 國際言語科學研究所 所報 1卷 3號에 收錄되었다. 小川環樹(1980), 拙稿(1980) 참고.

12)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Louis Ligeti(1970) 참고.

13) 위에서 인용한 日本書紀 神功四十六年紀의 ‘中’의 用例는 여기에 加耶도 追加될 可能性이 있음을 보여준다. 百濟에 있어서의 ‘中’의 用例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百濟에도 이런 用法이 있었을 可能性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格接尾辭가 있었음이 확실하니, 處格 表示의 ‘中’이 北魏에서 시작되었을 可能性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斷定을 삼갈 수 밖에 없으나, 文字의 흐름으로 보아, 北魏에서 발생하여 高句麗로 전파되었을 蓋然性이 더욱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이 筆者의 暫定的인 假說이다.

이 假說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推論을 해볼 수가 있다. 그것은 日本書紀의 記錄과 稻荷山 鐵劍銘의 年代 推定과 관련된 것이다. ‘中’의 用法이 5世紀 中葉에 高句麗에 전해졌고 그뒤 新羅나 加耶(또는 百濟)를 거쳐 日本에 도달했다면 日本書紀의 神功四十六年紀나 應神十三年紀에 ‘中’이 나타난 데는 큰 의문이 있다. 日本書紀에 따르면 前者는 西曆 246年, 後者는 282년에 각각 해당되는데 이 때에 ‘中’字가 處格 表示로 사용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神功四十年紀의 것은 우리 나라 南部의 ‘卓淳’國에서 사용된 것을 引用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인데, 그때에는 高句麗에서도 이런 用法이 없었으니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비록 一字에 지나지 않으나, 이것은 日本書紀의 虛構性 問題를 밝히는 중요한 端緒가 되는 것으로 筆者는 믿는다. 한편 日本學界에서는 稻荷山 鐵劍銘에 나오는 ‘辛亥’를 西曆 471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推定하는 說이 처음부터 유력하나, 이것도 再考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高句麗에 있어서의 ‘中’字의 絶對 年代가 5世紀 中葉이라면, 不過 20餘年 뒤에 이것이 日本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아주 不可能하지는 않다고 해도 큰 無理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五

위에서 세운 우리의 假說은 史讀의 起源 問題와도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中’字만을 가지고 대뜸 史讀의 起源을 云謂하는 데는 위험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몇가지 사실에 주목할 때 이 一字를 토대로 한 우리의 推論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첫째, 高句麗에 있어서의 ‘中’字의 使用은 그 年代의 上限이 대체로 분명하다. 이 점이 ‘中’字가 지니는 無比의 重要性이다. 둘째, 高句麗에 있어서 史讀의 用法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中’은 ‘之’와 함께 그것을 대표하는 例다. 셋째, 新羅의 初期 史讀 資料에서도 이들 文字의 使用이 그 특징을 이룬다. 이것은 新羅 史讀의 시작이 高句麗의 影響 밑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史讀라고 불려온 특수한 表記法의 첫시작이 대체로 5世紀의 高句麗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sup>14)</sup> 新羅에서 ‘之’를 비롯한 史讀式 表記法을 보여주는 資料들이 모두 6世紀의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 사실도 위의 結論을 支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우리는, 새삼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高句麗에 과연 史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

14) ‘之’는 廣開土王陵碑에 나오므로 4世紀로 溯及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는가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우리는 ‘之, 中, 節’ 등의 특이한 用法, 後日의 吏讀의 特徵을 이루는 用法이 高句麗 金石文에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漢文 文章을 吏讀라고 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吏讀의 概念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局部的 變形을 지닌 漢文이다. 漢文의 高句麗化의 一面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吏讀란 漢文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變形을 입은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위에서 南山新城碑가 新羅 吏讀의 典型的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컨대 新羅化의 程度가 매우 높아졌음을 뜻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資料만으로는 高句麗에서는 이 程度가 매우 낮아서 吏讀의 初期의 形態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本稿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問題 중에는 ‘之’의 用法은 高句麗에서 발생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理由는 무엇일까, 高句麗의 言語에 ‘之’字와 音相이 비슷한 終結形이 있었던 것일까, ‘中’字는 高句麗와 新羅에서 어떻게 읽혔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後日의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한다.

## 補 說

위에서 筆者는 ‘中’字의 특수한 用法이 北魏에서 高句麗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斷定的인 推想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를 느낀다. ‘之’의 특수한 用法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高句麗에서 시작되었을 可能性을 현재로서는 排除할 수 없으니, ‘中’도 高句麗에서 시작되었을 可能性이 없지 않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高句麗와 北魏에 있어서의 ‘中’字의 用法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생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두 나라의 用例들이 “某月中”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이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히 제한된 用法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漢文을 自國語에 맞게 變形시키려고 한 初期的 試圖에서 漢文의 文法에 아주 어긋난 用法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필시 漢文에 있는 用法을 조금 확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之’의 用法도, 漢文에서 他動詞의 目的語로 ‘之’가 文末에 자주 놓인 사실에서 이것을 自動詞의 뒤에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中’의 用法은 新羅에 와서 더욱 擴大되어 진정한 處格 表示로 발달했던 것이다. 이 例가 暗示하듯이, 吏讀의 本格的인 發達은 역시 新羅에서 이루어지 것으로 생각된다.

上述한 바와 같이, 北魏의 文獻에 “某月中”과 같은 用例가 있음이 지적된 것은 지난 79年 10월에 있는 한 심포지움에서였다. 그뒤 小川環樹教授는 北魏의 文獻들을 더 조사하여 그 用例를 추가했을 뿐 아니라 北周의 文獻에서도 유사한 用例를 발견한 바 있다. 그의 論

文(1980)에는 이 調査의 結果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 특히 흥미있는 것은 晉의 陶潛(陶淵明)의 詩集에서 詩題에 “某月中”이란 표현이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다. 靖節先生集(卷 3)에 “癸卯歲十二月中作”, “戊申歲八月中遇火”, “庚戌歲九月中 於西田穫早稻”등. 한편 그의 詩의 本文에도 “嚴霜九月中 送我出遠郊”란 예가 보이며 그의 散文에도 “常言五六月中 北窓下臥”란 표현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여기서 小川教授는 이 나중 경우들은 “九月 중에”, “五六月 중에”란 해석이 가능하며 漢文의 通例라고 할 수 있는 用法으로, 위의 詩題의 경우들과는 紐양스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詩題의 “某月中”이란 표현에서는 ‘中’은 보통 漢文에서는 불필요한 곳에 쓰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陶淵明과 同時代 또는 그 前後의 詩人들의 作品에서는 이런 用例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中’字의 使用에 있어서 陶淵明은 六朝 詩人들 중에서 완전히 孤立的 存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小川教授는 현재 널리 流布되고 있는 靖節先生集 十卷本은 北魏와 北齊에 벼슬한 陽休之(509-582)가 寫本으로 있던 두 책을 校合하여 편찬한 것인데, 이들 寫本은 北魏 및 北齊 사람들의 손을 거친 것이어서 ‘中’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推論하고 있다. 따라서 ‘中’字의 특수한 用法이 北魏의 時代에 시작되었다는 見解는 현재로서는 온당한 것이라고 그는 結論하였다. 한편 陶淵明의 詩題에 보이는 ‘中’字들이 後代의 刊本에서 삭제되었음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中’字의 이런 用法이 漢文의 文法에서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端的으로 증명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北魏의 文獻에서 ‘中’과 아울러 ‘別’의 특수한 用法이 확인된 것은 ‘中’字의 北魏 起源說에 다소 유리한 情況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本稿에서는 들지 않았지만 小川環樹(1980)는 北魏의 齊民要術과 洛陽伽藍記에서도 ‘中’字의 특수한 用例를 들었는데, 그는 이들 책에서 ‘別’字가 ‘마다’의 뜻으로 쓰인 예들을 찾아낸 것이다. “果別成林”, “畝別用五車”, “根別豎木”등. 그리고 이 ‘別’은 蒙古語에서 後置詞로 쓰이는 büri(마다)와 그 音相이 매우 유사한 점에 주목하였다. 지난 79년의 심포지움에서 ‘中’이 蒙古語의 處格接尾辭(-da/-de, -ta/-te; -du/-dü, -tu/-tü; -dur/-dür, tür/-tür 등) 등과 音相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지적된 일이 있었는데, ‘別’과 büri의 類似는 더욱 현저한 것으로, 北魏에서 ‘中’과 ‘別’이 선택된 데는 이러한 音相의 類似가 중요한 要因이었음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들 漢字의 특수한 用法이 北魏에서 시작되었을 可能性이 큼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첫째는 ‘別’字의 이러한 用法이 우리 나라에는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筆者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別’字의 이런 用例는 우리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小川教授는 이러한 用法이 日本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였으므로(9世紀의 日本靈異記) 우리 나라에도 있을 법한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 조사해 볼 필요를 느낀다. 언제나 절실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나라의 古代 資料가 너무나 빈곤함을 이 경우에 다시금 느끼게 된다.

또하나의 問題는 高句麗의 漢字音에 관련된 것이다. Ligeti(1970)는 北魏의 ‘乞萬眞’ (\*kelmürčün)을 몽고어의 kelemürčün (interpreter), ‘拂竹眞’ (\*pürtüčün)을 몽고어의 örtegečün (driver of a mail coach, coachman; one on postal relay duty)에 比定하면서 舌內入聲字인 ‘乞’과 ‘拂’의 韻尾가 t 아닌 r(l)로 읽힌 사실을 지적한 바 있지만, 위의 ‘別’과 büri의 對應도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것은 北魏의 字音에서 이 韻尾가 r이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중요한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 漢字音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舌內入聲 韻尾가 ‘ㄹ’인 사실이 지적되어 왔고 몇몇 學者들은 이 變化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하여 筆者는 年來로 이런 변화(즉 -t>-r)는 國語 音韻史의 觀點에서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미 中國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尙當함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高句麗 資料에 나타나는 舌內入聲字들의 韻尾도 역시 r(l)로 읽어야 함을 말해 왔다. (拙著, 國語史 概說, 1972; 拙稿,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 1968 등 참고)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北魏의 漢字音에서 이 韻尾가 역시 r(l)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 오랜 問題의 解決에 중요한 端緒가 되는 것으로 筆者는 믿는다. 아마도 우리 나라의 漢字音은 高句麗를 통해서 新羅에 들어간 것이 固定化 過程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高句麗의 漢字音은 北魏를 비롯한 北方音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觀點에서 高句麗의 漢字音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 參 考 論 著

- 姜鈴燮 1963. 史讀의 新研究, 大田.
- 南豐鉉 1975. 漢字 借用 表記法의 發達, 國文學論集 7·8.
- 申采浩 1924. 朝鮮 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東亞日報. 丹齋申采浩全集(改訂版, 1977) 所收.
- 沈在箕 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 安秉禧 1977.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
- 梁柱東 1942. 朝鮮古歌研究.
- 李基文 1972. 國語史概說, 改訂版.
- 李基文 1980. 稻荷山 鐵劍銘과 太安萬侶의 墓誌에 대하여, 京都産業大學 國際言語科學研究所 所報 1.3.
- 李丙燾 1957. 壬申誓記石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論文集 5.
- 李丙燾 1979. 慶州 瑞鳳塚 出土 銀合銘文考, Mélanges de Coréanologie offerts à M. Charles Haguenaer. Paris.

- 李弘植 1954. 延壽在銘 新羅 銀合村에 대한 一·二의 考察, 최현배선생 환갑기념 논문집.
- 李弘植 1960. 最近에 發見된 慶州 南山新城碑, 한 史家の 流薰(1972) 所收.
- 任昌淳 1958. 戊戌塢作碑小考, 史學研究 1.
- 鄭永鎬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그 研究展望, 書通 9.
- 鄭寅承 1957. 吏讀 起源의 再考察, 一石 李熙昇先生 頌壽紀念 論叢.
- 秦弘燮 1965.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
- 鮎貝房之進 1934. 俗文攷, 雜攷 第6輯 上編.
- 小川環樹 1980. 稻荷山 古墳의 鐵劍銘과 太安萬侶의 墓誌의 漢文에 있어서의 Koreanism에 대하여. 京都産業大學 國際言語科學研究所 所報 1.3.
- 小倉進平 1929. 鄉歌及吏讀의 研究.
- 板本太郎 外(校注) 1967. 日本書紀(上), 東京.
- 末松保和 1954. 壬申誓記石, 新羅史의 諸問題 (1954, 東京) 所收.
- Louis Ligeti. 1970. Le tabghatch, un dialecte de la langue sien-pi. *Mongolian Studies* edited by L. Ligeti. Amsterdam.
- Murayame Shichiro and Roy Andrew Miller 1979. The Inariyama Tumulus Sword Inscription.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5.2.